

민주노총 새집행부에 바란다

# 노동자의 정책 · 조직 · 문화를 만들어가자

김형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희의료원지부 정책국장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사이비 이념에 맞서는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민주노조의 가장 큰 힘인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왜곡된 문화를  
올바로 잡는 노동자 '문화'를 창조,  
보급하는 세 축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에 바라는 거 있어요?”

며칠째 펜을 꺾적이다가 조합원들에게 가볍게 질문을 던졌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노동자의 상식...”

“총파업에 대해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해요. 총파업 조직과정 까지도.”

“위에서만 진행하지 말고 늘 현장 조합원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종묘공원에서 열렸던 집회에서 보여준 지도부의 모습은 그 동안 민주노총 1기의 모습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노력이었다. 체육관이나 고수부지가 아닌 종묘공원에서의 집회를 고수한 것이 그렇고, 투쟁 결의문을 낭독할 때 조합원에게 지도부의 결의를 밝히는 모습이 그러했다.



상업은행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파견대상업무 확대 지원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이라는 별명을 딛고 진정한 민주노총, 노동자의 희망으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87년 노동자들의 대투쟁,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결성된 전국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은 97년 노동법 총과업을 겪으면서, 대선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장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만주에 있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진다며 우스개 소리로 민주노총을 ‘만주노총’으로 부르기까지 하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의 준비상태, 국민의 여론’이라는 근거로 여러 차례 파업을 철회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지켜내지 못했다. 과연 여론은 누구의 여론이란 말인가?

자본가의 상식에서 노동자의 상식으로!

눈만 뜨면 매스컴에서 떠돌아다니는 ‘IMF 위기에 노동자들이 다시 뛰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보채던 아이들도 ‘IMF 시대인데...’ 라고 말하면 청얼기름을 덜주고, IMF 상황마저도 돈벌이의 기회로 삼고자 거리의 간판마다 붙여놓은 IMF식 OOO, IMF 가격, IMF 파마... 매스컴과 주변 상황, 자본가의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의 비판 자살이, 노동자들의 실적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자본가, 정부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 인양 떠들어댄다. 며칠 전 조합원 간담회에서 한 조합원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병원의 경영상태가 좋은 지는 알고 있지만... IMF 시대에 다들 임금도 깎

이고 일자리도 없는데 우리도 고통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원 관리자들과 매스컴, 자본의 총 공세 속에서 어느덧 우리도 누구를 위한 고통분담인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자본가의 이야기를 마치 내 생각인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고통분담은 경영상태가 좋은 사업장의 노동자가 덩달아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된 노동자들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기'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노동자의 상식을 일반화하는 것은 바로 이데올로기 싸움이며 단위노조와 산별연맹, 민주노총의 모든 활동가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바로 민주노총이 그 최전선에서 노동자 상식의 것받, 노동해방의 것발을 굳건히 들고 나가기를 바란다.

### 민주노총, 새로운 '판짜기'를 주도해야

이제 민주노총은 미래의 10년을 준비해야 한다. 당면 투쟁과 함께 10년을 내다보면서 노동자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축에서 수비에만 급급하면 결국 잘해야 비길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목표는 총자본과 싸워 비기는 것이 아니다. 이겨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민주노총은 좀더 공세적으로 새로운 판짜기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사

이비 이념에 맞서는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민주노조의 가장 큰 힘인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왜곡된 문화를 올바르게 잡는 노동자 '문화'를 창조, 보급하는 세 축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난 10년간의 관성화된 기업별노조, 임투 중심의 현혹을 벗어 던지고 산별노조로의 재편과 경영참가, 대정부 사회개혁투쟁을 통해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거듭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안마다, 정부발표가 있을 때마다, 왜곡되어진 공익광고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본 입장으로 맞서야 한다. 그래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두 가지 입장이 논쟁거리가 되고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물론 노동조합 조직의 한계 속에서 이러한 바램이 너무 무리한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건설되지 않은 현재의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땅의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나는 민주노총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노총은 바로 나 자신, 우리 조합원 자신임을 잊지 않고 있다. 요구하는 만큼 책임지는 조합원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희망, 노동자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현장 조합원과 함께 열심히 활동할 것을 스스로도 다짐해 본다. 2기 집행부의 힘찬 투쟁을 기대하면서... ◆